

## 한국파사드협회, 글로벌 설계사무소 SPARK Architects와 공동 세미나 개최 국내 유명 건축가들의 참여로 한국 건축의 현대화에 대한 강연 진행

지난 12월 5일~6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국파사드협회(협회장 홍성철)와 글로벌 설계사무소인 SPARK Architects 공동으로 국내 주요 건축가를 초빙하여 '도시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홀'에서 약 1백여명의 SPARK Architects 건축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60년대 이후 빠르게 현대화가 이루어진 한국의 건축에 대한 폭넓은 강연이 이루어졌다.

이번 강연에는 아키텐의 김인철 소장, 와이즈건축의 장영철 소장, 문훈발전소의 문훈 소장 등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강연을 맡았다. 특히 문훈 소장은 한국관 전시에 참여해 2014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SPARK Architects는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설계사무소로 세계적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로 유명하다.

SPARK Architects는 이번 서울 행사를 통해 조직활성화는 물론 한국의 현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한국 건축가들과의 협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파사드협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한국파사드협회는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SPARK Architects와 협업으로 향후 세계 건축시장으로 국내 파사드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행사는 12월 5일에는 국내 건축가들을 초빙하여 한국 건축의 현대화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고, 6일에는 SPARK Architects가 현재 참여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품평회가 이어졌다.

국내 유명건축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서울 청담동 Platoonn Kunsthalle에서 열린 이번 품평회에서는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업으로 한국파사드협회는 세계 건축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파사드 관련업체들에게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한국파사드협회와 SPARK Architects 공동으로 이화여대 '이화-삼성홀'에서 국내 주요 건축가를 초빙하여 '도시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파사드협회 백준길 사무총장과 SPARK Architects 베이징 지사의 MIRANDA가 국내 유명건축가들의 강연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파사드협회는?

한국파사드협회는 건축의 외장 산업의 에너지절약 관련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와 업계 사이의 충실한 가교역할을 통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규격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업계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이행 및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건물 외장산업의 에너지부문 성능 향상 및 정부의 녹색건축 정책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PARK Architects는?

SPARK Architects는 독특한 건물과 사람들을 위한 좋은 장소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진 국제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각각의 프로젝트를 관리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도시의 경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건축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PARK Architects는 모든 프로젝트의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풍부하고 통합된 설계 솔루션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와 전문적인 경험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다국적 회사로 런던,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

